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7년 9월 17일 (제916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보색관계

빨간색의 보색은 녹색이다. 빨간색 속에서 녹색이 눈에 띄고, 검정색 속에서 흰색이 빛을 발하는 것이 이와 같은 이치다. 같은 맥락으로 악이 있어야 선이 돋보인다. 요즘 세상이 하도 어지럽고 악하다보니 선한 일 하는 사람들이 돋보인다. 임산부를 도운 경찰 이야기며, 평생 노점상을 한 할머니가 전 재산을 장학금으로 기부한 일이며, 몰래 산동네에 연탄을 배달해놓은 이야기 등은 마치 여름날에 마시는 청량음료 같고, 추운 날에 따뜻한 커피 한 잔과 같이 좋다. 사울 때문에 다윗의 업적이 더욱 빛이 나는 것이듯.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 염소 때문에 양이 잠들지 않는다. 어느 기업인이 가물치 이론을 내놓았었다. 미꾸라지를 차로 옮기다 보면 멀미를 해서 다 죽게 되는데 이 때 가물치 한 마리만 물탱크에 넣어놓으면 미꾸라지가 죽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가물치를 피해서 도망 다니느라 멀미할 시간이 없단다. 옳다. 교회 안에 치받는 염소가 있어서 목사도, 성도도 기도하고, 열심을 낼 수 있다. 브닌나로 인해 한나가 열성으로 기도한 것처럼 말이다.

바로 위에 북한이 있다. 그들이 없었더라면 정말 좋았겠지만,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자. 그들로 인해 우리가 자주 국방력을 키우고 있고, 더욱 결속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크게 쓰임을 받고 있다고.

많은 교단 중 지극히 작은 우리 교단을 통해 하나님은 통일의 기초를 놓고 계신다. 가문에서 가장 연약한 기드온을 들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이 작은 우리 예수중심교단을 들어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용사로 부르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기드온의 3백 용사처럼 우리도 극히 소수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평화통일은 반드시, 곧 온다.

역사의 현장에 모두가 동참하자!

우리는 올해 1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제8차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열고 국가와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 그리고 목사님은 다시 2월 23일경 ‘오는 5월 3일에 서울시청광장에서 제9차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열겠다’고 선포하셨다. 그러나 당시 탄핵정국과 대통령선거가 이어지면서 서울시청광장 사용에 차질이 생겼고, 5월 성회의 잠정 연기를 발표하셨다.

그리고 새정부 출범 후, 목사님은 하계산상집회를 마치시면서 다시 10월 2일 오후 3시에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기도성회’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겠다고 선포하셨다. 목사님 말씀처럼 이 땅에 평화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

지역을 기존의 중동위기를 넘어서는 지구촌 화약고로 만들어갔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선제타격 발언 등으로 한반도 위기는 국제사회를 더욱 긴장시켰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 이상으로 해외언론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한반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목사님은 항상 우리가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 기도한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또한 오늘의 위기가 더욱 증폭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던 애굽의 바로가 더욱 완악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표적임을 깨달아 두려움을 몰아내고 더욱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고 역설하셨다.

니”(딤후3:1~3). 확신하는 바는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확실한 경험적 지식이다. 이번 기도성회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서울시청광장에 임재하는 가운데 대역사로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일일지라도 대강 달려드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슬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백전노장이지만, 항상 새로운 전쟁에 임할 때면 전 역량을 풀가동하여 쏘아 부으신다. 이번 성회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 전쟁의 승리는 확실하다. 기도는 응답받고 하는 것이고, 전쟁은 이겨놓고 싸운다는 것이 목사님의 믿음이



나님께서 우리 교단에 주신 기도의 사명을 다하시겠다는 의지였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주의 길을 계속해서 가시겠다는, 비록 더딜지언정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전진하시겠다는 선언이었다. 지난 5월 계획을 연기하시면서 가을에 반드시 다시 기도성회를 열겠다는 의지를 줄곧 피력해 오셨다. 따라서 이번 10월 2일의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기도성회’는 2월 말부터 7개월 넘게 기도하며 준비해오고 있던 것이다.

잘 알다시피 예측불허의 북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계속되긴 하였으나 특히 그들의 핵개발과 함께 진행된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실험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을 긴장시키고 동북아

물론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려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안보불감증에 빠져있어서도 안 된다. 항상 설마 하는 불감증이 사고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새정부가 얹히고설킨 한반도의 갈등구도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역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세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도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만한 것이

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까 하는 점이다. 하나님을 항상 삶의 우선순위에 두던 믿음과 열정들이 변질되었을까 저어하는 것이다. 누구나 각자의 사정과 형편이 있고 어찌 할 말이 없겠는가마는 스스로 ‘진정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깊이 성찰하여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준비하리라, 내 적은 물질이라도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 쓰겠노라’ 결심하고 참여하는 기도성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성도의 믿음이 아닐까.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구독신청 02) 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민13:25~14:10)



인식의 변화 없이 미래는 없다

인식(認識)이란 기본적으로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인식의 차이에 따라 결과나 미래가 뚜렷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식이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정적인 인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만사가 부정적이지요, 미래 역시 부정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들을 택하여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곳을 같은 시간에 똑같이 보고 온 사람들의 말이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열 사람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니 가나안 땅 입성은 불가능하다’였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인식의 차이입니다. 앞의 열 사람은 부정적인 인식에 사로잡혀 있으나, 두 사람은 긍정적이지요 희망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전자의 10명은 자신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인식하는 대로 삶이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많은 사람들 중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즉 이적들을 보고도 그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았기에 결국 광야에서 다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 더 들여보시겠습니까? 알래스카에 냉장고를 팔라는 회사의 명을 받고 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여긴 온통 얼음인데, 냉장고가 팔리겠어요?” 라고 한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냉장고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무한대로 팔리겠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식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미래가 밝을까요?

여러분, 인식의 변화 없이는 미래가 박수를 치며 꽃다발을 안고 달려오지 않습니다. 어두운 먹구름만 덮일 뿐입니다. 한 일관계도 그렇습니다. 한일관계가 우호적으로 변화하려면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인식의 변화입니다. 경쟁 의식이나 경계의식을 버리고 동반자의 의식을 가질 때 한일관계가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요즘 주택문제로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택이 투자가 아니라 거주하는 곳으로 인식될 때 주택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올바를 때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엄하신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다가가지 못하고, 혼날까봐 멀리 도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가룟 유다나 사울처럼 말입니다. 그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전능자이시며,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가 의뢰할 유일한 분이십니다(시91). 더욱이 그 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우리



총회장 이초석 목사

리 문제의 보따리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고, 그 분 앞에서 하소연할 수 있고, 그 분 앞에서 땀방울도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분을 바로 인식하는 자체가 바로 믿음입니다.

소경 바디매오가 눈을 뜬 것이며, 12년 동안이나 혈투증을 앓던 여인이 나음을 입은 것,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을 고친 것 등 기적된 삶을 체험한 자들 모두는 능력의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했기에 그런 축복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도 사도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고, 바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분은 스스로 공의라는 테두리 안에 당신을 가두셨지만, 일흔 번에 일곱 번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우리의 신앙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냉정하게 버리신다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인식할 때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열과 성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신명기 28장을 대하는 태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온통 복 이야기입니다. 나 가도 복, 들어가도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14절 이하만 보

고는 저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잘 못 하면 저주하시는 거 아닌가?’ 하고 두려워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쥐뿔 놓고 걸리기만 기다리는 분입니까? ‘잘못 하기만 해라. 바로 저주다.’ 이러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든 복을 주시려고, 어떻게든 잘 되게 하시려고 애쓰시고, 참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뀔 때 여러분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양이도 호랑이에게 훈련을 받으면 호랑이 같이 행동합니다. 그러나 호랑이도 고양이 밑에서 자라면 고양이처럼 사람이 주는 먹이나 의지하게 되고 재롱이나 피우며 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식이 그렇게 박혀서 그런 겁니다. 닭 우리 속에 사는 독수리는 하늘을 날 수 없지만, 인식이 바뀔 때 독수리는 우리를 박차고 나가 창공을 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분에 대한 인식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에게 교육

받으면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교육을 받은 자는 예수님과 같이 되어, 예수님의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요14:12). 제가 그 샘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의 종이 된 후로 저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바뀌었고, 사람의 자녀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 즉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일개 농사꾼의 아들을 세계 위에 명성이 높아지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인식(認識)의 변화는 긍정적인 마음에서 나온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호랑이 새끼가 호랑이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머리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식이란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때 인식은 자동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사55:8~9). 하나님의 생각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물 안에서 보는 세상과 우물 밖의 세상이 다르듯, 사람의 초점에서 보는 것과 하나님의 초점으로 보는 만물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십시오. 능력의 하나님이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식의 변화가 없이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인식이 있결랑 과감히 바꾸십시오. 당신의 미래가 밝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약속을 통해 자신이 세운 뜻을 이루신다.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살아 있을 동안에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할지라도 그 자손에게 이르러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약속을 망각하거나 취소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 이니라 하셨다 하니라”(창22:16~18)고 약속하셨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요8:56)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생전에 주님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그는 자신이 받은 약속을 이삭에게 기업으로 물려주며 축복했고,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유산한 약속을 자신의 아들 야곱에게 물려주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손에게 기업으로 물려준 것은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소망

을 갖고 기다리며 자신의 후손에게 물려주었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그들이 성취되기를 갈망하던 약속이 천년 후에라도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실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도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서 성취될 것을 믿고 기도한다.

우리의 믿음은 언약의 성취에 대한 역사적 확신과 주장이다. 그러나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현실이 될 수 없다. 이는 성령께서 예수가 하시던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때문이다. 이 성령의 체험은 관념이나 느낌이 아니요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성령은 믿음을 초월하지 않으시고 믿음은 성령을 초월할 수 없다. 성령의 감동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성도의 당연하고 보편적인 경험이다. 이것은 성령에 이끌림 받을 때만 가능한 체험이다. 성령의 임재는 신자의 성격과 인격을 지배하고 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다. 성령 받은 자만이 불신앙에 도전하고 죽음과 투쟁할 수 있다. 우리에게서 믿음으로 시인하는 지식보다 성령으로 경험하는 확증이 더 필요하다. 믿음에는 거짓이 없다. 현실에서도 증거될 수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신기류 목사

abba7777@naver.com

하나님의 역사하심

닌텐도(게임기)가 너무도 갖고 싶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있다. 조부모 밑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학생은 닌텐도를 살 돈도, 사줄 이도 없다.

그러한 상황 중에 목사님을 통해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이 게임기를 주셨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시인했다. 때로는 무시와 핍박이 왔지만 개의치 않았다.

시간이 흘러 청소년수련회에 참석하게 된 학생. 수련회 마지막 날 경품 추첨을 통해 선물을 주는데 2등 상품이 닌텐도이다. 물론, 하나님은 정확히 학생을 당첨케 하시어 닌텐도를 주셨다. 믿음의 체험을 한 학생은 휴대폰에 문자를 저장했다.

“하나님을 백으로 세상과 맞장 뜬다.” 환경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당당히 세상과 맞서겠다는 고백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영적인 대 전투를 앞두고 있다.

‘10월 2일,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기도성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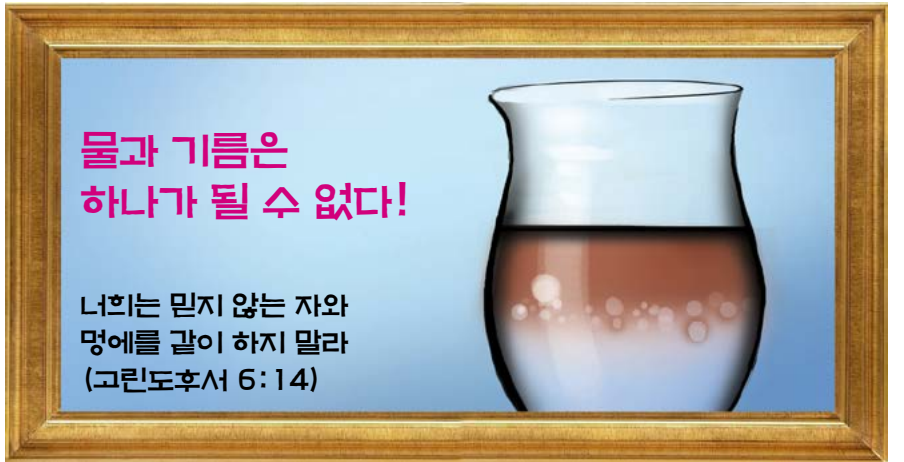
총칼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며 시인하는 성회이다. 믿음의 용사들은 “안 돼, 못해, 없어...” 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 의식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믿음의 전쟁은 총칼 없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 12만을, 히스기야를 통해 앗수르의 18만 5천을 무찌르신다.

믿음의 용사들이여! 영적 전투의 장인 서울시청광장으로 나오라.

하나님을 백으로 어둠의 영들에게 당당히 맞서자. 여리고가 무너지듯 휴전선은 무너질 것이다.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 교단소식 ::

JC아카데미 개강 - 섬김의 참 의미



타는 듯한 여름이 가고 청량한 가을 내음이 가득한 9월 5일, 2017 하반기 JC아카데미가 개강했다. 이번 학기 JC아카데미는 대대적인 개편을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기존 금요일 강의를 화요일로 옮긴 것이다. 이는 아카데미에 참석하는 젊은이들 90%가 직장인데 기존 강의가 금요일에 진행되다보니 회사에서 잔업무가 남거나 회식이 있어 종종 늦게 오거나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시대 목사님께서 그런 청년들의 사정을 들으시고 더 많은 이들이 아카데미에 참석했으면 하는 바람에 강의를 금요일에서 화요일로 옮겨주셨다. 이런 목사님의 배려에 부응하듯 지난 9월 5일, 목사님께서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엘

루체 컨벤션홀은 말씀을 사모하는 젊은이들로 가득 찼다. 이날 이시대 목사님은 요한복음을 강해하셨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야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 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요13:1~10).

유월절 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세족식을 거행하신다. 더운 기후의 이스라엘 지역 특성상 유대인들은 샌들 형태의 신발을 신었고 사막이 많은 지역이기에 발이 쉽게 더러워졌다. 이에 유대인의 풍습에서 식사 전에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나 하하는 하찮은 일이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종들처럼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닦아 주시며 섬김의 본보기가 되셨다. 그리고 후에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죄 많은 우리들에게 희생으로 인한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는 행위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닦는 것을 너무 황송하여 사양한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본인은 베드로와 상관이 없다고 하시고 경고에 놀란 베드로는 온몸까지 씻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을 하여 깨끗해진 사람은 발에 묻는 먼지만 그 날 그날 씻으면 된다고 하신다. 이는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

자체가 제자들의 죄 사함과 관련이 있음을 교훈하신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목욕을 한 것처럼 죄 사함(원죄)을 받는다. 이에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제자들이 발을 씻은 것처럼 자신이 지은 죄(자범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받아야 함을 설명하신 것이다.

목사님께서 이 날, 세족식 사건을 통하여 섬김의 또 다른 의미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섬김이란 사전적 의미는 ‘신(神)이나 위사람을 잘 모시어 받든다’는 것인데 섬김의 방향성은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향임을 설명해주셨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발을 씻겨주시는 것도 섬김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잘 씻겨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섬김이라고 설명하셨다. 이는 섬기는 이의 마음을 섬김을 받는 이가 잘 알 때 쌍방향의 섬김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것도 섬김이요, 섬겨주는 이의 마음을 그대로 받는 것도 섬김임을 깨닫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남이 나를 섬겨줄 때 감사히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

3년 전, 부모님 집에서 독립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을 노리는 나쁜 범죄들이 심상치 않게 일어나다 보니 아무래도 여자들의 독립생활은 남자들보다 더 신경 쓰고 걱정해야 할 일들이 많지요. 밤에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무언가를 배달시키거나 살림살이가 고장 났을 때 수리기사를 부르는 당연하고 작은 일에도 가끔 겁이 납니다. 혼자 살아도 현관문 앞에 아빠나 남동생 신발을 두라는 둥, 빨래를 널 때 남자 티셔츠를 함께 널어서 식구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라는 둥의 조언들이 괜히 생겨난 게 아니겠지요. 제가 이사한 즈음엔 한 팀원의 아파트에 도둑이 들어서 귀중품을 모두 도난당하는 일이 생기자 호신용 야구 방망이 구매와 도둑침입 시 대처 방법이 며칠 째 점심시간의 토크 주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사는 동안 무섭거나 두려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대범한 성격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사는 집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독립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잠자기 전 기도하는 중에 마음

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하나님께 제 집의 동서남북 사면을 보호하고 지켜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순간 천군과 천사가 밖에서 견고하게 제 집을 지키고 있음이 심령 깊숙이 느껴지고 믿어졌습니다. 제 기도에도 항상 귀 기울이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 벅찬 마음으로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저희 엄마께서 자주 들려주던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일의 특성상 저녁 늦게 출근해서 아침 일찍 퇴근하셨는데, 밤이 되면 엄마와 어린 셋 딸만 오롯이 집에 남게 되었지요. 금요일야예배와 수요저녁예배, 철야기도모임이 있는 날에 엄마는 울거나 보채는 저희를 집에 두고 교회에 다녀오시곤 했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키워준 건 다 하나님이라고, 엄마는 두고두고 말하십니다. 최첨단 CCTV를 달고 방법창을 이중삼중으로 설치한다 할지라도 안심

할 수 없는 게 요즘 세상이지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켜주실 때에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비로소 우리는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신 군사는 늘 무언가 부족합니다. 완벽하거나 우월한 군사가 없지요. 기드온의 300명 군사처럼 수적으로 불리하거나 여호수아 군대처럼 메뚜기 같이 연약해 보이거나 기생의 아들인 입다처럼 출신이 비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무기나 권력, 기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겐 핵도 신무기도 없지만 하나님이 있습니다. 가정과 집, 더 나아가 국가와 민족까지 지킬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의 힘을 압니다. 10월, 시청에서의 기도를 통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성을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신은혜
dopal0203@naver.com

이 결코 아닙니다.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구별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쉬운 방법을 정하신 것입니다. 단뿔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약식동원(藥食同源) 쌀편

오늘은 쌀과 그와 함께 먹는 곡물류들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식감본초에서는 쌀은 비장, 위장, 폐장을 보하며, 오래 복용해도 독성이 없고 맛이 달며, 피로를 개선시키고 소화기를 건강하게 하며, 허약체질이나 소화불량 및 살이 마를 때 활용하면 좋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활용법으로 설사를 할 때는 쌀 100g을 볶아서 물을 붓고 죽을 끓여 먹으면 좋고, 큰 병으로 밥맛이 없을 때는 당삼 30g을 달인 약죽에 쌀 100g을 넣고 죽을 끓여서 1~2차례 따뜻하게 데워먹습니다. 기력이 너무 떨어졌을 때는 인삼 5g, 황기 30g을 잘게 썰어서 물을 붓고 60여분 끓여 나온 농축액을 뽕쌀(60g)과 죽을 섞서 빈속에 먹으며, 잠을 못잘 때는 산조인 30g으로 잘 달인 약액을 뽕쌀 50g으로 죽을 쑤어 복용하면 수면이 촉진되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찹쌀(糯米)은 독성이 없으나 일반 쌀에 비하여 성질이 따뜻하고 소화기를 튼튼

하게 하며 설사를 하는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과 몸에 열이 많을 때는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리(大麥)는 성질이 찬 편이어서 몸이 차거나 대변이 묽은 사람은 소식하거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리차는 여름철 더위를 해소시키고, 식욕을 증진하며 피로를 없애줍니다. 밀(小麥)은 소맥이라 하며 성질이 달고 서늘합니다. 심장과 비장에 영양을 공급하며 마음을 편안하게하고 갈증을 줄이며 열을 낮추어줍니다. 불안하고 잠이 안올 때 소맥 60g, 감초 6g, 대추 10개를 달여 마시면 정신이 안정되고 잠이 편안해지며 갱년기 여성들에 도움이 됩니다. 옥수수(玉蜀黍)는 성질이 평이하여 소화기에 좋고, 붓기를 빼주며, 혈압을 낮추고, 항산화 기능이 강하여 항암예방효과가 있습니다. 치매 증상의 예방, 치료에 옥수수의 아연과 셀레늄 성분이 도움이

됩니다. 메밀(蕎麥)은 소화기의 체증을 내려주는 데 도움이 되고, 대변을 소통시켜어 비만한 사람의 다이어트와 변비 치료에 좋으며, 피부질환이나 대하증에 도움이 됩니다. 성질이 찬 편이라 소화기가 차고 약한 경우는 주의합니다. 울무쌀(薏苡仁)은 약간 서늘하며 설사나 소화기, 기관지, 피부미용에 좋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여 설사를 그치게 하므로, 변비가 있는 사람이나 임산부는 피합니다. 수수(高粱)는 약간 따뜻한 성질이 있어서 속이 차서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거나 토할 때 도움이 되며, 변비나 당뇨병 환자는 복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곡물들이 각각의 성질이 다르고 효능이 다르니 자신에 맞는 것을 택하여 몸의 밸런스를 맞춰가 는 것이 좋겠습니다. Dr. 설재현
kseolmed@hanmail.net

인생의 배분율

타임지의 표지인물로 세계적인 투자가 ‘조지 소로스’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물론 다른 부자들이 추구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단지 건강을 위하여 시간이 나면 테니스를 치고 스키를 타고 해변을 거닐 뿐, 그는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생각하는 데 쓰고 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직 이 두 가지 생각이 나의 관심사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조지 소로스를 일컬어 ‘생각하는 부자, 철학이 있는 부자’라고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래전에 재미난 배분율을 발표했는데, 물론 개인적인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의 평균 수명을 70으로 잡고, 70평생 동안 사람이 무엇을 하며 보내는지를 나누어본 것입니다. 사람은 일생 중 20년은 직장에서, 20년은 잠자는 데, 7년은 밥 먹는데, 7년은 노는데, 5년은 웃 입는데, 1년은 전화하는데, 2년 반은 빈둥빈둥, 3년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데, 5개월은 신발을 신고 벗는데, 2년 반은 화장실에서, 그리고 고작 1년 반을 교회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분율에는 안타깝게도 영적 풍요로움의 보고인 기도시간과 성경읽기, 정신적 풍요로움의 보고인 독서시간과 운동 시간의 배분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엡 5:16)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100세를 ‘하늘이 내려준 나이’, 즉 상수(上壽)라 했을 정도로 특별하게 여겼지만, 현대의학과 의식주 개선으로 백세시대라는 말이 이젠 낯설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사람에게 일생동안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가치 있게 배분하며 살았는가가 더 값진 것 아닐까요?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